

## 목장교회 나눔지

11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 얼음 깨기

## 길을 잘 아시는 아버지

## 교회행사

컵이 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가끔은 비워야, 새 은혜가 채워집니다.

[나눔] 내 안에 비워야 할 '가득 찬 것'은 무엇일까요?

## 11월

1일	문답식/국월센터 야유회
2일	세례식
9일	성찬식/더가족세미나
16일	개강
19일	추수감사주일
29일	마하나임/트리니티 중창단 더비기닝 선교학교 수료식

## 12월

14일	목장모임방학/ 어와나 2학기종강
24일	성탄전야
25일	성탄절
31일	송구영신예배

## 경배 찬양

##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해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 소식

## 1. 세례 / 입교 / 학습

오늘 세례받은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함께 걷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찬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주님과 함께 걷는 한주간의 기를 바랍니다.

## 2. 유학생을 위한 가을, 겨울옷 모집

네팔과 스리랑카 등 더운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의 가을과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옷을 기부 받고 있습니다. (가을옷, 겨울옷, 신발, 목도리, 장갑 등)

## 선교

## [고은빈 선교사]

1. 에나리우 미션 교회의 건축과 여전도 회원들의 문맹 퇴치 교육을 위해.
2. 에나리우 미션 스쿨의 부대시설 건축과 자격증을 갖춘 교사 충원을 위해.
3. 장학생 선별 과정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 한문장 큰 울림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는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데드라인은 없다  
그저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잠잠히,  
안정을 취할 뿐이다"

-A.W 토저-

## [에스라 2:68]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 터에 이르러

## 하나님의 전을 그 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에스라서 2장은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지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과 숫자, 족보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긴 이름들의 목록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감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들의 이름이며, 은혜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 1.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회복의 길을 여신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새 공동체를 세워 갔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70년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반응한 이는 전체 유대인 중 불과 10~30%에 불과했습니다. 약 42,360명만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대부분은 바벨론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통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의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회복의 부르심을 주시지만, 실제로 일어나 순종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물리적 귀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이들만이, 진정한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나눔]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인지 나눠봅시다.

## 2. 하나님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신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다시 세우며 헌신하였습니다. 에스라 2장 68-6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떤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닿는 대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자원하여” 헌신했습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막 재료를 바쳤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에서 받은 금은보화를 성막 건축에 드렸듯, 바벨론에서 받은 선물과 재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원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부르심은 단지 예배 출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각 사람의 ‘자원함’을 사용하십니다. 물질, 시간, 재능, 헌신 그것이 무엇이든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성전이 세워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온누리교회의 핵심가치는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이 가치는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등록은 했지만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는 이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가 아니라 감동으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원함이 있을 때,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교회가 어렵고 세상이 냉랭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나눔]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일과 ‘자원함’으로 하는 일이 각각 무엇입니까? 함께 나눠봅시다.

## 3.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

귀환한 이스라엘의 목표는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 성전을 새롭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순전함”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에스라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 ‘섞이지 않는 순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성전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신앙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욕망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커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마음의 성전 건축입니다. 이 과정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를 세우십니다. 신앙은 주일 하루의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십시오. 돌아와서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돌아와서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십시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나눔] 내 마음속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또는 무너진 부분, 회복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나눠봅시다.

에스라 2장은 단순한 귀환 명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모두 “농임을 받고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세상의 포로됨에서 농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한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예배와 헌신 속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기쁘게 자원하는 사람,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감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함께 서 가길 소망합니다.